AUTHOR 정원범

TITLE 깔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IN 신학과 문화
vol.3 (4, 1994): 107-137

<참 고 도 서>

개혁교회. 제 5 호. 개혁출판사, 1993.
박성현. "솔로몬 성전 - 구조의 이해". 예루살렘. 2호. 1993년 봄, (74-106)
박철수. 성전과 예수. 서울 : 반석문화사, 1993.
볼프강 후버, 이신건 역, 교회.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0.
박정식. 나눔과 섬김. 서울 : 섬기는 교회, 1992-1993, 1호-5호.
원강기. 목회자가 본 성서신학적 교회 건축. 서울 : 보이스사, 1991.
이종성. 교회론. 1.2권,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정승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 선교 전략" (침신대 신대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91)
Encyclopaedia Britanica

깔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정원범/조직신학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또 경험하고 있다.새로운 문민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거의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그동안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와 충격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보아 오고 있다.

지난 6개월을 평가하는 한 여론 조사에서 '변화된 영역들이 어디인가?'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대통령이었다. 이

---

* 본 고는 본교의 1993년도 2학기 개강 특강 원고임.

는 변화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영역은 어디인가?' 하는 항목에서는 종교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종교계가 꼭 교회를 지칭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 개혁과 변화의 주역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의 개혁의 역사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런 현실을 초래케 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자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본인은 개혁교회의 원조가 되는 J.Calvin의 사회윤리사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와 그 책임 수행의 원칙이 무엇이었나를 살펴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그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II. 깔뱅과 사회적 책임

깔뱅의 삶과 신학만큼 경건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드물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신학은 경건에 의한, 경건에 대한, 경건을 위한, 경건의 신학[1]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저 유명한 작품, '기독교강요'

[1] 경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를 쓰면서 그는 "기독교강요는 경건의 모든 분량과 구원의 교리 중에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며 경건에 열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물론 수도원적인 경건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는 동시대인의 사회경제적인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깔뱅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 영역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즉 제네바 도시인들의 정치,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깔뱅이 있었던 제네바 도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도시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지역적 인플레이션, 전통적 거래 방식의 변화, 카톨릭 박해를 피해오는 개신교 망명객들의 끊임 없는 유입, 그로 인한 심한 굶주림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깔뱅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에 대해 밝힌 그의 견해 속에서 우리는 그 실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제네바에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허욕과 탐욕에 의한 야망으로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있었다."[2]

이런 상황 속에서 깔뱅이 의도하였던 것은 하나의 기독교적인 사회,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3] 말하자면 제네바를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당시 깔뱅은

정원범, "깔뱅신학의 특징과 오늘의 의미", 신학과 문화, 장로회대전신학교, 1992, 창간호, pp.64-66.

[2]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생명의 말씀사, 1986, p.143.

[3] Lester Ronald De Koster, *Living Themes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pp.427-428.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것에서 그것의 주체성을 빼앗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들로 채우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사실 깔뱅의 지위가 성장하면서 더욱이 그의 관심을 끌지 않았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으며 또 시의회도 모든면에서 그의 조언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당시 제네바에 있어서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는데, "제네바의 역사는 모든 길이 결국 깔뱅에게로 통한다."는 몽테르의 말 그대로였다.[4]

이런 점에서 보면, Graham이 말한 대로 "깔뱅은 복음을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세속주의자였다."[5] 이와 같이 그의 종교 개혁은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들로 채워 가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히 종교의 개혁, 교리의 개혁이었을 뿐 만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 도덕의 개혁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III.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그러면 깔뱅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깔뱅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창조의 관점

[4] W.F.Graham, 김영배 역, *op. cit.*, p.241.
[5] *Ibid.*, p.245.

Wallace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과 모두가 공통된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깔뱅의 모든 가르침의 초석이다.[6] 말하자면 깔뱅에 있어서 인간이란 공통적인 본성(common flesh)과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서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깔뱅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의 근거가 있다. 깔뱅은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인간성을 납득시키기를 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멸시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세상 안에 있는 많은 피조된 인간들 속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한가지 사실이다.

그러나 또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려 할 때 나는 나의 육체를 멸시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주목하자. 즉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권세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혹사해서는 안되며 또 지나치게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셨다. 또한 그들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셨고 또 우리는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원하셨다."[7]

[6] Wallace, *Calvin's Doctrive of the Christian Life,* 1982, p.150.
[7] Corpus Reformatorum 26:304 (이하 C.R),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1989, P.187, 재인용.

또 다른 설교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자신을 더이상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주 낯선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들 속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무어인이나 야만인을 대할 때 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임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지니고 있다."[8]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깔뱅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인간의 형제됨, 이웃됨의 연대성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이 연대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사회적 책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깔뱅이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깔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9]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또 말하기를 "어느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자취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자취가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10]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깔뱅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1]

[8] Serm, on Galatians 6:9-11, J. Alton Templin,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The Thought of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23, No.2, Nov. 1988, p.164, 재인용.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1.54,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이하 Inst.)

[10] *Inst.* II. 2. 17.

[11] *Inst.* III. 7. 5.

그렇다면 깔뱅이 아담의 타락을 말하고 또 모든 인간이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면서 여전히 인간 안에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것인가? 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잔존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첫번째 문제에 대한 깔뱅의 대답은 다음의 글에서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공통의 본성에 의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반드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뼈요, 살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 거룩한 사회로 부터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패가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합의 창시자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12]

"어떤 무어인이든 야만인이든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임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확립해 놓은 자연의 질서를 철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결국, 깔뱅에 의하면 모든 인간 상호간의 결속의 띠로서 간주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침범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로 확립해 놓은 것이기에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사악함이 자연의 원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12] C.R. 45:187-188, Leith, *op. cit.*, p.185.

[13] C.R. 51:105, *Ibid.*, p.186.

다.(갈5:14)

두번째 문제에 대한 깔뱅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져 버리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죄로인한 그 오염이 너무 심하여 이제 남아있는 것은 끔찍하게 기형적이된 형상일 뿐이다."[14]

"하나님의 불투명한 잔여물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너무나도 손상되고 기형적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구석구석마다 온통 일그러지고 변질되고 더욱이 이러한 악마저 첨부되었기 때문에 인간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부분도 죄의 전염으로 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15]

이와같이 잔존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변질되고 부패된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결속의 띠로서 파악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확립하여 놓으신 것이므로 타락이후에도 결코 소멸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형제들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16]고 깔뱅은 말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러기에 타락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웃을 해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17]

[14] *Inst.* I. 15. 4
[15] Comm. on Genesis 1:26
[16] C.R. 50:251, Leith, op. cit., p.187.

B. 복음의 관점

크리스챤의 사회적 책임의 두번째 근거는 복음 자체의 본성이다. 깔뱅에 의하면, 종교의 참된 근원을 떠나서는 사회적 책임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만 주목하기 때문이다."[18]

"사랑이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성령이 그의 능력을 발함이 없이는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19]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곳에 정의란 없다. 그렇다면 선하고 올곧은 삶 속에서 첫째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20]

이와같이 깔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회적 행동의 근원임을 확신했다. 따라서 깔뱅은 종교적 근거를 떠나 사회적 책임을 발전시키는 노력은 그 어떤 노력도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악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사회적 행동과 책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든 종교는 거짓

[17] C.R. 27:542, *Ibid.*
[18] C.R. 45:612, *Ibid.*, p.188.
[19] C.R. 55:355, *Ibid.*
[20] C.R. 44:487, *Ibid.*

된 것임을 깔뱅은 확신하였다. 깔뱅은 말하기를,

"우리가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부정직과 폭력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21]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깔뱅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대한 순종이 종교의 참된 시금석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와 화해했다는 사실과 ····· ·····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신다. 이는 우리가 모두 형제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 얻어진 화해를 즐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서로 갈라지며 우리의 이빨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기질은 잔인하다. 그럴 때 우리가 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진리에 주목해야 하며 또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에 대항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사랑에의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너무 많이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깔뱅에 있어서 신앙이 윤리를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면 윤리는 신앙을 입증해주는 시금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깔뱅에게 있어서 사회윤리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그의 요점적 견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하기로 하자. 깔뱅에 의하면, 첫째 돌판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칙으로서 신앙을 요약하는 것이라면 둘째 돌판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과 행동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다시 말하면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를 규정하는바,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된다면 둘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로운 생활과 상호간의 사랑의 임무를 규정하는 바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23]

다시금 이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깔뱅의 명확한 주장을 들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24]

"우리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원인으로 하여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요한이 형제 사랑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이유는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경외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25]

이와같이 깔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명백하게 밝혀주었다고 여겨진다.

---

[21] C.R. 37:378, *Ibid.*, p.189.

[22] 레 19:18, 구약성경주석 4권, 성서교재간행사, 1985, p.472.

[23] 출 32:15, *Ibid.*, 5권. p.321.

[24] 요일 2:9, 신약성경주석 4권, p.203.

[25] 요일 3:12, *Ibid*, p. 239

C. 사회적 책임 수행의 원칙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회, 경제적 삶의 영역속에서 책임있는 행위를 한다고 할때 그 원칙은 무엇인가?

이제 깔뱅이 말하는 사회적 행동의 원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랑의 원칙

전술한 바 있듯이, 인간 상호간의 삶 곧 사회적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전부 요약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웃이란 우리의 친척,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전체 인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26]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대로 인간은 한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웃인간에 대한 이 사랑의 규칙이 그의 사회경제 사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규범이 되는 동시에 그 중심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 형제들의 궁핍을 돌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지만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 줘야할 양을 제시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아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얽매이도록 하지 않고 사랑의 규칙을 우리의 지침으로 취하도록 요청하신다."[27]

깔뱅은 바로 이 사랑의 규칙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표준으로 삼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26] 레 19:33, 구약성경주석 5권, p.87. 갈5:14 에서는 이웃이란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27] W. Fred Graham, *op. cit.*, p.96, 재인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28]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깔뱅에 의하면, 사랑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부정적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이나 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 사랑을 부여 받은 자는 결코 자기 형제들을 해칠 생각을 않을 것이다. 율법 전체가 금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29]

"그러므로 그의 이웃을 해치는 누구라도 사랑과 친절과 동정심이 없으며 그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움켜쥐고 잡아채어 빼앗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산산이 부수는 것이다."[30]

이제,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31] 달리 말하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깔뱅은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우리 형제를 도와줄 때 우리는 우리 사랑의 신실함을 입증하게 된다."[32] 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여 깔뱅은 이웃을 해치고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 거침없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예컨대, 밀매

[28] 롬 13:8, 신약성경주석 7권, P.410

[29] 롬 13:10, *Ibid.*, p.411.

[30] ed. Sammuel Dunn, *The Best of John Calvin*, 김득용 역,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성광문화사, 1985, p.136.

[31] 고전 13:13, 신약성경주석, p.385.

[32] ed. S. Dunn, 김득용 역, *op. cit.*, p.125.95

점자들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들을 물어 뜯고 그들의 죄를 빨아 먹고 사는 살인자들과 야수들"[33]이라고 불렀는가하면,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가공할 만행"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민법들이 언제나 너무 많은 권력을 주인(고용주)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과 일치하는 법을 넘어서는 어떤 권력도 주인들에게 허용하시지 않는다."[34]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자 제도에 대해선 그것을 중세의 가르침과는 달리 제도적으로는 정당화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규칙에 근거하여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5] 뿐 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아 보는 책임을 제도화 시키기 위해 제네바를 위한 교회의 법령을 입안하면서 교회의 4직분 가운데 집사직을 두었는데 이일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시킴으로써 그는 제네바의 복지에 구체적인 기여를 했다.[36] 이것은 사회봉사가 교회 밖의 기관에게 떠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37] 실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깔뱅의 관심과 사랑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

[33] 마 3:9-10, W. Fred Graham, 김영배 역, *op. cit.*, p.101.
[34] W. F. Graham, *Ibid.*, p.79.
[35] 출 22:25, 구약성경주석 5권, pp.96-98. L. F. Schulze, "Calvin on Interest And proprety", *Our Reformational Tradition*, 1984, p.222.
[36]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17, No.2, Nov. 1982, p.220.
1541년 제네바를 위해 깔뱅이 초안한 교회법령에 보면, 집사직에 대해 제네바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다.
"초대교회에는 언제나 두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 어떤 집사들은 재산, 수익, 연금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재산, 의연금을 수납하고, 분배하고, 보굴하도록 하기 위해 선발 되었다. 다른 집사들은 병든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며 가난한 자들의 음식 급여액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선발되었다."
[37] Dendy, *Marshall C. Changing Patterns in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p.31.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해 물려 받은 것이든 근면과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풍요로움은 지나친 무절제를 위하여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들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하라고 맡겨진 것임을 생각하도록 하라."[38]

"부유한 자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의 가난을 덜어주는데 나눠 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3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부자의 편만 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나 자비가 없다는 증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0]

이와같은 사회 경제적 가르침들을 통해 깔뱅은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게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깔뱅은 사랑의 원칙을 단순히 개인윤리의 영역에서 뿐 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독교의 표준과 인간의 법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2. 공익의 원칙

깔뱅의 사회윤리에 있어서 공익의 원칙이란 사랑의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공익의 원칙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위해 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높이려고 하지말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공동선 (common good)을 증진시키

---

[38] W. F. Graham, *op. cit.*, pp.95-96.
[39] 출22:25, 구약성경주석 5권, p.97.
[40] *Ibid.*

려고 노력해야 한다."[41]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깔뱅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증신시켜야 한다는 이 공익의 원칙은 그의 사회 경제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이다. 특별히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일과 작업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을 깔뱅은 강조한다.[42] 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일이 공동체가 선하고 유익한지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일이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 몸에 대한 지체들의 비유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돈이 다른 지체를 농락하고 심지어는 손상을 입히는데 사용이 된다면 온 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 것이다. …… 유용하지 못하고 공익에 봉사하지 않고 각자의 개인적 이익에만 기여하는 어떤 작업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43]

요컨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만이 선한 일이요 선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깔뱅이 전인류의 공동체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된다. 그가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합의 띠로 묶어 놓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분리되어 혼자 살아서는 안된다고 보았으며 공동체에서 유리

[41] C.R. 31:380 Leith, op. cit., p.181.
[42]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Social Ethics and Spirituality in Calvin's Thought," Perspectives I, Sep. 1986, p.8.
[43] W. F. Graham, 김영배 역, *op. cit.*, pp.114-115.

되어 혼자 사는 것은 짐승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44] 이렇게 공동체의 개념은 그의 사회 윤리사상의 초석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셨다는 이 전인류의 공동체성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뱅은 비판할 수 밖에 없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이 공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경은 …… 우리가 주님으로 부터 받은 은사들은 무엇이나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아래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분배해야 된다는 조건아래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상 더 확실한 규범이 없다."[45]

말하자면, 공익의 원칙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활의 어떤 양식도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46]고 깔뱅은 보았으며, 또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에 대한 참된 이해를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47] 다시 말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와 물질의 사용은 선한 것이

[44] Serm. No. 71. on Job, 115,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201, 재인용.
[45] *Inst.* III, 7. 5.
[46] 마25:24, W. F. Graham, *op. cit.*, p.118.
[47] Comm. Ps. 122:6. Matt. 5:25. W. J. Bouwsma. *op. cit.*, p.202.

며 경건한 것이 되는 반면,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거스리는 은사와 재물의 사용은 악한 것이요, 불경건한 것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수행에 있어서 이처럼 공익의 원칙이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 경향성 때문이다.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자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뿐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고 뒷전으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48]

"지나치게 자기들의 권리에 집착하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데 지나치게 열심을 갖고 있다."[49]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깔뱅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공익의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깔뱅의 입장과 관련하여 두사람의 평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비엘러의 평가이다. 그는 말하기를 "깔뱅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전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두극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힘썼다."[50] 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깔뱅의 경제관은 '개인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그래함의 평가이다. "깔뱅의 본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개인의 유익이 보호되지 못했다. 어느 편이냐 하면, 깔뱅

[48] 출23:4, 구약성경주석 5권, p.105.
[49] W. J. Bouwsma, *op. cit.*, p.202.
[50]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영광문화사, 1985. p.112.

자신은 제네바의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행에 대해 훨씬 엄격했다."[51] 고 그는 평가 하고 있다.

어느 입장이 타당한 견해일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가 아닌가 여겨진다. 왜냐하면 깔뱅의 사상속에는 원칙적으로 볼때 상호 상반되거나 상응되는 요소들을 역동적 균형의 관계로 통합시켜 나가려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깔뱅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는 공동체를 개인위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52] 이렇게 깔뱅이 공동체를 개인 위에 두었다는 사실은 그가 말하는 균형의 의미가 절대적 균형이 아니라 역동적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겨진다. 분명한 점은 이만큼 깔뱅은 공익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3. 정의와 공평의 원칙

깔뱅의 사회윤리사상에 있어서 사랑과 공익의 원칙과 나란히 강조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이다. 깔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랑과 공익을 위한 삶인 것 못지 않게 정의의 삶이다. 그렇다면 깔뱅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불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안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세대에 공통되는 정의의 원칙이다."[53]

"의란 각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돌리려는 공정한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54]

[51] W. F. Graham, 김영배 역, *op. cit.*, p.258.
[52] W. J. Bouwsma, J. Calvin, *op. cit.*, pp.230-232.
[53] 시15:5, *Ibid.*, p.202-203, 재인용.

"의란 인간들이 누구이건 해치려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려 할 때 인간사회에서 시행되는 공정한 행동이다."[55]

"정의란 무고한 백성을 보호하며 포용하며, 자유롭게 해방하는 일이다."[56]

이렇게 본다면, 깔뱅에 있어서 정의란 소극적으로는 불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압제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선을 베풀거나 분배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깔뱅에 있어서 정의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공정이나 공평이란 말과 동일시 되어 사용되어진다.[57]

이제 깔뱅이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말하는 두 경우 만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재판에서 요구되는 공평의 법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드리고자 한다면 공평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 가령 어떤 재판관이 열명의 도둑을 처벌하고 한 사람은 놓아 준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곧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죄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용서하는 것이다."[58] 이처럼 이 공평의 원칙이 재판관에게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관이 행하는 임무의 성격때문이다.

[54] *Inst.* III, 7. 3.
[55] 행10:35
[56] *Inst.* 4. 20. 9.
[57] J. 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262.
[58] 약2:12, 신약성경주석 4권, p.328.

즉 재판관의 임무란 모든 악과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악은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편애나 증오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것이기에 재판하는 사람이 소송 그자체에서 눈을 조금이라도 떼게 된다면 공평을 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5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로 하여금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공평을 추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깔뱅은 이 공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자제도에 적용되는 공평의 원칙이다. 깔뱅은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에 있어서 통렬하였다. 왜냐하면, 탐욕스럽고 추잡하지 않은 고리대금업자를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그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전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돈의 이용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불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돈은 돈을 낳지 못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으며 또한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의 고리대금의 금지 조항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도 않았다.[60]

이미도 언급하였듯이 중세교회가 가르친 이자의 금지는 깔뱅에 의해 허용되고 합법화 되어지는데 정당화의 근거가 바로 공평의 원칙이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빌려주는 동안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

[59] 구약성경주석 5권, pp.110-111.
[60] Jane Dempsey Douglas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and Society 74, Mar/apr. 1984, p.78.

면, 빌린 사람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이득을 얻는 반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것이 깔뱅이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자의 허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의 요지이다.[61]

깔뱅이 공평의 원칙을 말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이 원칙의 성경적 근거로 황금률을 들고 있다.[6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공평의 원칙만을 적용하여 보아도 이자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공평한 대접의 법칙을 우리가 이웃과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는데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법칙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63] 결국 이러한 깔뱅의 이자에 대한 정당화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 볼때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더글라스의 말을 빌린다면, "사회윤리에 대한 깔뱅의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공헌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이 영역에서 나타났다." 고 여겨진다.[64]

4. 역동적 균형 및 중용의 원칙

깔뱅이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논할 때 그는 중간노선을 택한 신학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두 그룹 - 때로는 그 이상일때도 있지만 - 의

[61] 출 22, 구약성경주석 5권, p.101.
[62] 시 15:5, 구약성경 7권, p.379.
[63] 마 7:12, 신약성경주석 1권, p.323.
[64] Jane Dempsey Douglass, *op. cit.*, p.78.

반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였다.[65] 그래서 요셉 보하텍(J.Bohatec)은 깔뱅은 타협의 신학자가 아니라 대치된 두 입장을 연결지워주는 대각선의 신학자였다고 말한다.[66] 이에 대해 맥킴은 "이것은 그의 모든 근본적 사고 개념이 거짓된 양극단 사이의 참된 중간이라는 긴장의 한 범위 안에서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67]고 말하고 있다.

양극단의 두 입장을 지양하고 참된 중용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깔뱅의 입장은 그의 윤리사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먼저 극도의 엄격함과 무절제한 방종, 사치의 양극단을 피하고자 하는 깔뱅의 입장을 살펴보자.[68] 깔뱅은 우선 인간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배격하는데 옷에 대한 다음의 표현을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옷을 산뜻하고 우아하게 입는 것을 금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나친 엄격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비록 너무 호화스럽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안다. 베드로는 모든 종류의 장식을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허영의 악을 비난하려는 것이다. 옷을 입는데 중시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유용성과 고상함이다. 고상함이 요구하는 것은 절제(moderation)와 정숙(modesty)이다."[69]

[65]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풍만출판사, 1985, p.137.
[66] *Ibid.* p.105, p.198.
[67] F. L.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ed. D. K. Mckim,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p.202.
[68] Leith, *op. cit.*, p.151.
[69] C.R. 55:254, *Ibid*, p.152.

또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인간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도 봉사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우시고 우리가 냄새 맡도록 달콤한 향기를 부여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 아름다움에 감동이 되고 그 기분좋은 향기에 우리의 코가 감동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 한마디로 주께서는 어떤 필요한 유용성에 상관없이 우리의 호평을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는가?"[70]

이런 점에서 보면, 깔뱅은 말할 것도 없이 극도의 엄격함을 지향하는 금욕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71] 다른 한편으로 깔뱅은 방종과 무절제의 극단, 즉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법에도 매어 있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배격한다. 세상의 모든 축복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준비시켜 주는 수단들이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들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때 이 수단들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깔뱅은 다시 말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치에 빠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기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사치에 넘겨줄 때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또 환락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을때, 그들은 짐승보다

[70] *Inst.* III, 10. 2.
[71] Edward J. Tanis, A. M. "Social Teachings of Calvin's Institutes", *The Calvin Forum*, 1936. 10. p.54.

더 나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은 어떤 목적으로 방향지워져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72]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첫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선물이 창조주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73]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물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지 우리에게 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74]

이렇게 깔뱅은 극도의 엄격함과 무절제한 방종의 극단을 배격하고 그 양극단에 대한 처방으로 중용을 강조한다.[75] 이러한 중용의 자세를 통해 그는 제네바의 경제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덕적 부패를 개혁해 나가려 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제는 부와 가난의 문제와 관련된 그의 중용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물질적 번영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 그러기에 그는 부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가난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게 되거나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 하고자 하는 유혹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76]

만약에 누군가가 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이

[72] C.R. 36:111, Leith, *op. cit.*, p.153.
[73] *Inst.* III. 10. 2
[74] *Ibid.*
[75] Ford Lewis Battles, "Against Luxury and License in Geneva" Interpretation 19, Apr. 1965, p.184.
[76] W. J. Bouwsma, *op. cit.*, p.57.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부가 하나님께로 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은 다른 재해(고통)보다 더욱 사람들을 부패케 하며 하나님에 대해 눈 멀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깔뱅은 생각했다.[77] 그도 그럴것이 풍부함 다음에는 즉시 사치와 방황과 쾌락과 자만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깔뱅은 생각하기를 부란 "교만, 허영, 하나님경멸, 잔인, 사기, 및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초래하며 그리고 나서 육체적 쾌락을 가져오며 결국 인간을 완전히 동물화시키고 만다."고 보았던 것이다.[78] 여기서 우리는 부의 양면성을 보게 된다. 즉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영적인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올바른 사용은 어떠한 것인가? "먹고 마셨고", "정의와 의를 행했던" 요시아 왕을 부의 이상적 사용자로 깔뱅은 묘사하고 있다.[79] 요시아 왕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기쁘게 살았고, 번영을 즐겼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를 행했다는 것은 "풍요를 즐김에 있어서 절제를 힘쓰며"[80], "형제의 궁핍을 덜어주는데"[81] 그의 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에게 부가 주어진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케 하려는 데 있다.[82] 그러기에 가난한자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83] 만약 부자들이

[77] Leith, *op. cit.*, p.194.
[78] *Ibid*, p.51, 재인용.
[79]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988, p. 204.
[80] 렘 22:15
[81] 고후 8:15
[82] Serm. on 2 Sam. 1:27-7 R.S. Wallace, *op. cit*, pp.185-186. W.C. Innes. *op. cit.*, p. 238.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의 가난을 덜어주는데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84]

그러나 부의 이러한 올바른 사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없는 탐욕과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깔뱅은 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통의 지위와 적당한 부가 양극단 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적당한 재산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보다 평화로우며 시기심의 폭풍우에 노출되지도 않고 음험한 혐의를 받지 아니한다."[85]

이러한 깔뱅의 중용적 태도, 또는 역동적 균형의 입장은 노동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게으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가르쳤다고 깔뱅은 생각하였다.[86] 그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게으르도록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회중들에게 가르쳤다. 그만큼 깔뱅은 게으름을 싫어하였다.

반면 일이 중요하긴 해도 그것이 과도하게 될 수 있기에 그는 또다시 중용의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일 역시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이 허용되거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분주할 때 함부로 자신을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87]고 말한다.

따라서 깔뱅은 게으른 비활동성과 자신을 지나치게 피곤하고 지치게

[83] 행 6:2.
[84] 출 22장, 구약성경주석 5권 p.97.
[85] 창 26:16, Bouwsma, *op. cit.*, p.196.
[86] 마 20:1.
[87] 마 6:15-30, Bouwsma, *op. cit.*, p.199.

만드는 고통 모두를 배격하는 중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깔뱅이 이처럼 중용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란 언제나 극단을 달려 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깔뱅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88]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란 항상 자제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므로 하나님에게 온건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자."[89]고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 수행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자신의 사회 경제 윤리 사상을 잘 요약하여 주고 있는 내용을 길지만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90]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지상의 물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주님께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물품을 탐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견디어 내야한다. 우리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악한 욕망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88] 행 28:6, *Ibid.* p.50.
[89] *Ibid,* 신약성경주석 6권 p.392.
[90] Andre Bieler, 홍치모 역, *op. cit.*, pp.112-114.

두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직하게 일해야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물품을 악독한 책략을 써서 끌어 모으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댓가로 부여되는 이익을 정당한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팔고 사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기 행위나 계략이나 거짓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신실하고 충직한 태도로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적게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빵을 먹어야 하며 많이 소유한 자도 자기 소유물을 방탕과 무절제, 사치스러운 지출 또는 불필요한 일, 교만과 허욕에 사로잡혀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는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고 부의 힘을 잘 활용하여 이웃을 돕고 이웃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물품을 부여받아 그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진 자로 여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품을 언제나 만나에 비유했던 사도 바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자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게 먹고 남는 것은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는 가난한 자를 돕는 수단이다. 부를 통해 행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지킬 수도 있다.

IV. 깔뱅의 사회윤리사상과 한국교회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의 사회윤리사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이웃간(사회공동체)에 대한 관계 사이에 어떠한 이분법도 존재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학에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이웃)에 대한 책임이, 이 양자 사이에 어떤 이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의 신학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으며 또 그런 현상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세계 교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보수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복음전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치적 책임에 치중하여 복음전도를 단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사회적 관련성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후자는 복음전도의 책임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보수진영및 복음주의진영의 교회를 본다면, 아무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의 질문에 대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얻어낼 수 없겠기 때문이다.

1.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웃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가고자 했는가?
2. 그들은 얼마나 공동체(인류공동체,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 왔는가?
3.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 왔으며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 왔는가?
4.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하며 즐기되 얼마나 그것들을 절제[91]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 왔는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부끄럽게도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제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본다. 첫째로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의 원천인 복음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자체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복음적 신앙을 더욱 생명력 넘치고 활기차게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신앙인의 삶의 자리인 사회적 현실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불의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나라의 비전과 복음의 정신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1] 이것은 부에 관련해 볼 때 지나친 풍부와 극빈의 양극단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